
해외문화체험 배낭연수 보고서

소 속	직 급(위)	성 명	연 수 업 무
노무복지팀	관리2급(팀장)	김희승	이동 및 안내 관련 편의성
운영관제팀	사무5급(과장)	최현우	안전 관련 시설물
문화홍보팀	사무6급(과장)	최연호	위생 및 역사 내 문화시설
IT전략팀	사무6급(과장)	이다인	연수팀 대표 및 운영 전반

2024년 배낭연수 보고서(13팀)

홍콩은 좁은 면적에 인구밀도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함.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등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구매하면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에 자동차 보유율이 낮은 국가에 속함. 그래서인지 연수기간동안 도로 위에서 자동차보다 대중교통이 더 많이 보였으며 이층버스와 트램이 서로 엉켜있는 독특한 도로망을 보며 광주도 하루빨리 자동차보다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높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음.

I 개요

- 연수목적 : 해외 선진 지하철 및 다양한 교통수단을 경험하여 해외의 좋은 사례를 탐색하고 글로벌 정신을 통해 조직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연수기간 : '24. 5. 13 ~ 17(5일)
- 연수국가 : 홍콩
- 연수동기
 - 홍콩은 지하철, 버스(이층버스), 트램, 택시, 공항철도, 페리 등 교통수단이 다양하여 자유롭게 경험해 볼 수 있음
 - 특히 '서니베이' 역사와 열차는 디즈니로 꾸며진 테마열차 느낌으로 노선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도 우수사례로 참고할 수 있음
 - '옥토퍼스' 카드는 우리나라의 티머니와 비슷하지만, 편의점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이나 마트, 식당에서도 사용할 수 있음.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일정 금액만큼 마이너스 사용이 가능함. 급한 출퇴근 시 잔액 부족으로 게이트 통과를 못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좋은 기능이라 생각함

II

연수내용

□ 연수 업무

연번	소 속 (직급)	성 명	연 수 업 무
1	IT전략팀 (사무 6급)	이다인	○ 연수팀 운영전반 / 총괄·계획 준비 - 연수팀 대표 및 이동 전반 일정 관리 - 영상촬영 및 팜플렛 등 자료취합 - 콘텐츠 발굴 및 제작
2	노무복지팀 (관리 2급)	김희승	○ 이동 및 안내 관련 편의성 - 노선도, 안내표시 등 비교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 체험 및 우수사례 탐색
3	운영관계팀 (사무 5급)	최현우	○ 안전 관련 시설물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파악 - 역사 및 열차 내 안전시설물 현황 확인
4	문화홍보팀 (사무 6급)	최연호	○ 위생 및 역사 내 문화시설 - 열차와 역사 내부위생, 청결 상태 비교 - 기타 역사 내 문화시설 벤치마킹 탐색

□ 교통수단 종류

1. 공항철도

- 홍콩공항에서 시내까지 3개 역사(공항↔칭이역↔구룡역↔홍콩역)를 정차하며 35km의 노선 거리를 가지고 있음. 1시간가량 걸리는 지하철을 이용해도 되지만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마지막 정거장까지 24분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음
- 공항에서 홍콩 입성은 내릴 때 태그, 홍콩에서 공항 이동은 탑승 시 태그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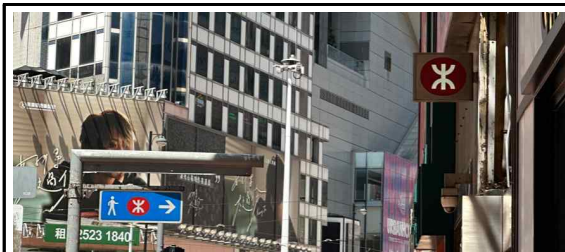
자리마다 있는 충전포트 및 안내표시



공항철도 내부

2. 지하철

- 멀리서도 역 표시  가 눈에 띄어 쉽게 입구를 찾아갈 수 있음. 또 역마다 내부 색깔이 달라 구경하는 재미가 있음.
- 기본요금은 HKD4~5(한화 700원~800원대)부터 시작하며 구간별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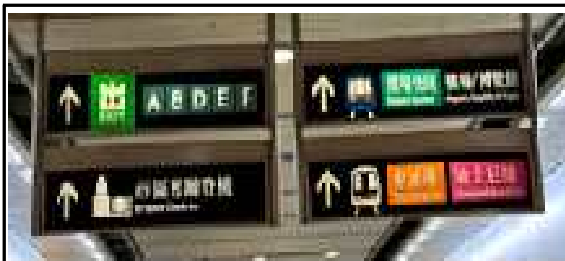


멀리서도 눈에 띄는 역 표시



역사별 색깔이 다름

- 출구 및 환승 표시는 매우 직관적으로 표시되어 헤매지 않고 찾아갈 수 있음. 우리처럼 1호선, 2호선으로 구분되는 게 아닌 '@라인'으로 명시되며 색깔로도 함께 표시되어 환승하고자 하는 라인의 색깔만 보고도 찾아가기 쉬움
-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동안은 스크린도어 안에 설치된 광고판을 보고 있으면 대기시간이 지루하지 않음



출구 및 환승역 표시



승강장 내 광고판

- 옥토퍼스 카드 충전 방법은 우리와 비슷하며 안내되는 그림만 따라 하면 매우 쉽게 할 수 있음. 또 잔액을 확인하는 별도의 기기에서 잔액뿐만 아니라 충전 금액 및 이용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음(옥토퍼스 카드는 1HKD만 충전되어도 일정 금액까지 마이너스로 사용 가능함)



-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유독 넓게 느껴졌음. 체감상 최소 10cm 정도로 느껴짐. 캐리어를 빠르게 밀면 통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음. 또 열차 내부에는 기둥이 있는데 사람이 많이 붐벼 손잡이를 잡기 어려울 때는 가운데 기둥을 잡을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됨



- 열차 내부에 노선도는 서울 노선도 색깔과 유사하며, 에스컬레이터의 왼쪽은 통행할 수 있도록 비워두는 것은 우리와 동일함
- 다만 속도가 너무 빠르게 느껴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듭



- 서니베이 역은 디즈니랜드로 가는 지선 열차가 연결되어 있고, 단일역사(서니베이 역 ↔ 디즈니랜드)만 왕복 운행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는 생각이 듭
- 이 지선 열차는 창문, 손잡이까지 사진을 안 찍을 수 없는 귀여운 열차로 내·외부에는 미키마우스 캐릭터 모양으로 꾸며져 있으며 캐릭터도 전시되어 있었음(하차의 아쉬움이 느껴짐)



3. 버스(이층버스)

- 탑승 방법은 한국과 동일(앞문 승차 → 뒷문 하차)하며 승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면 됨
- 요금은 지하철과 비슷하게 HKD4~5(한화 700원~800원대)부터 시작하며 일부 단거리 노선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제로 운영됨
- 좌석마다 안전벨트가 있으나 착용하는 사람들은 없었음
- 버스 내부 안내표지판에는 남은 정거장별 소요 예상 시간이 표시되고 있음. 평균 정거장별로 1~2분 정도 소요 되지만 안내판을 통해 정거장별 도착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음



4. 트램

- 탑승 방법은 버스와 반대(뒷문 탑승 → 앞문 하차)이며, 하차 시 태그하면 됨
- 요금은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거리와 관계없이 균일하며 성인 기준 약 HKD3(한화 500원대)로 매우 저렴함
- 트램을 경험해 본 연수자들도 있지만 처음 탑승해 본 사람으로서 뺨 뚫린 2층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낯설었지만, 한편으론 광주에서 언제쯤 트램을 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음





트램 탑승 후 찍은 사진

5. 피크트램

- 홍콩섬 빅토리아 피크타워로 오르는 강삭철도로 홍콩의 경치를 한눈에 감상하고자 한다면 필수로 타야 하는 코스임
- 직접 현장 티켓을 구매해도 되지만 여행 어플에서 미리 티켓을 구매한다면 긴 대기없이 QR코드로 빠른 입장이 가능함
- 생각보다 경사각이 커서 놀랐고, 가파른 경사인데도 빠르게 안정적으로 올라가서 또 놀람
- 피크트램은 처음 산꼭대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수단에서 유래되었으나, 현재는 관광상품으로 개발되어 홍콩의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



피크트램 외관 및 내부

꼭대기에서 바라본 경치

6. 택시

- 색깔(빨강, 파랑, 초록)로 이동지역을 구분하여 운행함. 가고자 하는 지역에 어떤 색깔의 택시가 이동하는지 확인하고 탑승해야 함
- 기본요금은 약 HKD27(한화 4500원~4700원대) 정도이며 거리가 늘어날수록 요금도 추가됨

- 우리나라와는 운전석이 반대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으며, 우버 어플을 사용하여 택시를 잡기도 하는데 대부분 카카오택시처럼 콜을 잡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으나 핸드폰을 띄워놓고 운행 중인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음



7. 페리(홍콩섬 ↔ 침사추이)

- 기대 이상으로 좋았던 교통수단을 꼽으라면 페리를 선택하고 싶음. HKD4~6(한화 700원~1,000원대) 정도의 저렴한 요금으로 홍콩의 느낌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수단임
- 또 약 6~12분 정도의 배차시간으로 긴 대기시간 없이 탈 수 있다는 점도 좋음



- 홍콩의 모든 교통수단을 타보겠다는 연수목적은 달성하였기에 의미 있는 연수가 되었음
- 안내표지판 및 노선 안내 등 표시가 잘 되어서 외국인들도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고, 시내 전 지역은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어 자동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만큼 교통 체계가 발달하였음
- 저렴한 교통 요금과 깨끗하고 질서있는 모습에서 홍콩을 다시 보게 되었음
- 홍콩의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의 목적을 넘어, 다양한 콘텐츠(관광상품, 광고매체 등)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임
- 현재 광주시에서 도입추진 중인 G-패스 카드의 활용 범위도 홍콩의 옥토퍼스 카드와 같이 여러 방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홍콩을 다 알아보기엔 4박 5일의 연수 기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고 도시 자체가 굉장히 세련되고 활발한 느낌을 받았음. 타국에서 서로 의지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였음